

〈구운몽〉에 내재된 작자의 신분질서 의식

노 경 희*

-
- | | |
|------------------------|---------------------|
| 1. 서론 | 3. '개인'의 강조와 평등의 시선 |
| 2. 신분질서에 대한 '제한된' 비판의식 | 4. 결론 |
-

1. 서론

西浦 金萬重(1637~1692)의 〈구운몽〉이 한국 고전소설 중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작품은 창작된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널리 유행한 작품 중의 하나이며, 국문학 연구가 진행된 이래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작품 중의 하나이다.¹⁾ 특히,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 받은, 보기 드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여러 방면에서 논의되는데, 그 중 한 가지로 소설을 천시하는 사회 배경 속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창작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어머니 윤부인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작품”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자가 지닌 높은 수준의 사유가 내밀하게 숨어 있으리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선행 연구의 한 흐름에는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그 배경이 되는 작자 김만중의 생애와 사유의식에 대한 연구²⁾도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

작품 자체의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성진의 세계를 중심에 두어 ‘속세의 부귀공명을 일장춘몽으로 돌리는 것에 한정’ 하는 것과, 양소유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부귀공명을 성취해 가는 양소유의 영웅적 일대기’로 받아들이는 층위가 그것이다.³⁾ 특히

* 필자 :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 1) 〈구운몽〉의 연구성과는 원전 연구, 사상 연구, 비교문학적 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양이 축적되어 왔다. 〈구운몽〉의 연구사 정리는 김병국의 「구운몽, 그 연구사적 개관과 비판」(『김만중연구』, 새문사, 1983)과 박병완의 「구운몽의 연구사적 성찰」(『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을 참조할 수 있다.
- 2) 이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근래에 나온 김병국 교수의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을 주목할 수 있다.

양소유의 삶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한 연구⁴⁾는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과 ‘옹호’라는 일견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즉, “현실 세계의 모순을 개인적 차원에서나마 인식하고 이를 낭만적 역설의 차원에서 비판하고 있다”는 견해⁵⁾와 “모순된 현실을 조화로운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엄격한 신분질서를 유지한 가운데 상하층 계급의 화평으로 조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려는 당대 사대부 계층의 의식을 담고 있다”라는 견해⁶⁾가 바로 그것인데, 이 둘은 각기 작품 〈구운몽〉이 지닌 본질적인 성격의 한 단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한쪽 방면에 치우쳐 작품이 지닌 또 다른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결과적으로 두 가지 상반되어 보이는 특성을 ‘공유’한다고 하는 〈구운몽〉의 핵심적인 특징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전자의 견해는 중세 신분질서의 모순을 넘어서려는 작자 의식의 일면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의의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대상의 범위를 하층계급과 민중에까지 바라본 것⁷⁾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작품 전편을 통해 구현되는 세계가 “엄격한 상하질서 속에 유지되는 조화롭고 행복한 세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분질서의 모순에 대한 작자의식이 하층계급에까지 미쳤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자의 연구는 당대 ‘상층 사대부 남성’으로서 작자 김만중이 지닌 의식구조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양소유를 비롯한 여덟 여인이 엮어내는 애정의 표현방식이나 태도에 나타나는 중세적 규범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후’들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에 소홀했다”⁸⁾는 점에서 그 한계가 엿보이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핀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구운몽〉에 내재된 작자의 시선이 당시 신분제도를 비롯한 중세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인식이 철저히 자신이 속한 상층계급 내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체제에 대한 비판과 옹호, 이

3) 장효현, 「〈구운몽〉의 주제와 그 수용사에 관한 연구」,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4) 김석희, 「서포소설의 주제 시론」, 『선청어문』 18집(서울대, 1989); 신재홍, 「구운몽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 5집(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박일용, 「인물형상을 통해 본 구운몽의 사회적 성격과 소설사적 위상」, 『정신문화연구』 44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정출현, 「구운몽의 작품 세계와 그 이념적 기반」, 『김만중문학연구』(국학자료원, 1993); 정길수, 「구운몽의 독자는 누구인가」, 『고소설연구』 13집(한국고소설학회, 2002).

5) 박일용, 앞의 논문, 192~193면. 이상의 논의에 대해 박일용 교수는 다른 한편으로 위의 성격이 ‘당대의 혼란스럽고 모순된 사회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대부 남성의 사유가 보이는 낭만적 세계관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6) 정출현, 앞의 논문, 172~185면. 이러한 시각은 신재홍(앞의 논문, 142~152면), 정길수(앞의 논문, 70~77면)의 논의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7) 박일용, 앞의 논문, 196~201면 참조.

8) 정출현, 앞의 논문, 197~198면.

양면적인 속성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운몽〉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중세 사회 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성격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점을 살피는 것이 작품 이해의 주요한 틀이 될 것이다. 이는 그간의 연구에서 충분히 지적되고 있는, 작품 〈구운몽〉의 다층적인 사유 인식⁹⁾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중세 후기의 한 지식인이 중세적 질서를 옹호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신분질서에 대한 ‘제한된’ 비판의식

〈구운몽〉¹⁰⁾에서 楊少游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추동력은 궁궐, 閨閣, 村家, 길거리, 변방, 江湖 등에 흩어져 있는 八仙女와의 결연 과정이다. 특히 팔선녀와의 결연 중에서 가장 해결이 어렵고 작품 전반에 걸쳐 중심이 되고 있는 결연을 꼽으라면 곧 사대부 여인 鄭瓊貝[英陽公主]와의 결연을 들 수 있다. 양소유가 하층민인 기생이나 侍婢 등과는 결연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데 비해,¹¹⁾ 사대부 남성인 양소유에게 신분이나 재덕, 용모로 미루어 볼 때 가장 어울리는 상대로 설정된¹²⁾ 정경패와의 결연 과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

9) 서포소설의 다면적 성격을 지적한 연구로는 김무조, 『서포소설연구』(형설출판사, 1976)와 배수찬, 「김만중 문학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98) 등을 들 수 있다. 김무조의 경우 표현과 가치관, 주제, 사상 등의 측면에서 〈구운몽〉을 비롯한 김만중의 소설이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논하였고, 배수찬의 경우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그 현실주의적 성격과 낭만주의적 성격의 양면성을 밝힌 바 있다.

10) 본고에서 대본으로 삼은 자료는 한글 最善本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대본’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이다. 본고의 주관심사가 작자의의식에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원작에 가까운 작품이 적합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현재 最古本으로 평가받는 자료인 한문본 ‘노존B본’이 있으나 ‘서울대본’ 또한 ‘노존B본’의 국역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내용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문은 정병욱·이승욱 교주본(『한국고전문학대계』 9, 민중서관, 1972)의 현대어역을 신기로 한다. 〈구운몽〉의 이본에 대한 연구로는 정규복, 『구운몽 원전의 연구』(일지사, 1977); 「구운몽 노존본의 이분화」(『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1987); 「구운몽 서울대학본의 재고」(『대동문화연구』 26, 대동문화연구원, 199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1) 이를테면 기생 계섬월과의 결연은 하룻밤에 정을 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정경패의 시비인 가춘운과의 결연 역시 ‘속임수’라는 완충장치를 통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들의 결연이 지닌 사회적 함의는 보다 심각하고 비극적인 것이 사실이나, 적어도 작품 안에서는 비교적 간단히 처리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2) 이는 계섬월의 “매양 長安 사람의 말을 들으면 鄭司徒의 여자 용모와 재덕이 당금 여자중 제일이라 하니 낭군이 京師에 가 모로미 유의하여 들보소서”라는 말과, 杜鍊師의 “한 처자 있으니 재모를 의논하면 진짓 양량의 짝이로되 다만 門地 너무 높아 여섯 대 공후요 세 대 정승이라”라는 언급에서 확인된다.

다는 점은 일견 의아한 일이다. 여기서 작자에게 양소유와 정경패의 결연과정은 여타의 결연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간 기생·시비 등 하층계급 여인들과의 결연과 사대부 여인이나 공주 등 상층계급 여인들과의 결연을 대립구도로 설정하여 상하층 계급간 ‘신분갈등’의 문제가 작품 이해의 한 축이 되었던 것 이외에 또 다른 의미망을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소유와 정경패의 결연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들의 결연에 천자의 누이 동생인 蘭陽公主 李簾和와의 결연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태후 가라사대, “이 일은 너의 종신대사이니 본디 너와 의논하고자 하더니라. 양상서 풍류 문채 조신 중비할 이 없을 뿐더러 통소 한 곡조로 인연을 점복하면 지 오래니 결단하여 양가를 버리고 타인에게 구혼은 못할 것이요, 상서 정녀로 더불어 심상한 의혼이 아니라 정분이 중하여 서로 버리지 못할 듯하니 이 일이 극히 난처한지라, 내 뜻에는 상서 환조한 후 너를 성혼 후 정녀로 첩을 취하기를 허하면 상서 말이 없을 듯하되 다만 여아 원치 아닐까하노라.”

공주 대왈, “소녀 일생 투기를 알지 못하니 어이 정녀를 용납지 못하리이꼬? 다만 양상서 처음으로 아내를 빙레하였다가 후에 첩을 취함이 예에 어긴 듯하고 정사도 여러 대 재상의 집이라 여자로써 첩 삼음이 원이 아닐 듯하니 이 일이 마땅치 아닐까 하나이다.” (...중략...)

태후 왈, “이는 불가하니, 같은 人家 여자는 한가지로 부인 됨이 방해롭지 아니하거니와 여아는 이 先帝의 끼치신 몸이라, 하물며 상이 사랑하시는 누이요 一身이 輕치 아니하니 어찌 여염 소소여자로 더불어 비견할 리 있으리요?” (237~239면)

양소유와 정경패·이소화(난양공주)의 결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일국의 공주인 이소화와 사대부 여인에 불과한 정경패가 그 위치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만일 태후의 뜻대로 정경패가 양소유의 첩으로 들어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작품에서는 결코 정경패가 첩이 될 수 없음을, 禮의 문제까지 거론하며 장황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정경패는 “그 자질이 뛰어나다면 마땅히 윗사람으로 삼기겠다”는 난양공주의 관용과 황제와 태후의 승인으로 영양공주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난양과 함께 ‘夫人’의 자격으로 양소유와 결연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영양공주로 책봉된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정경패의 위상이 오히려 난양공주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궁녀 공주(정경패)의 관복을 받들어 입히니 사은하고 올라와 난양공주로 더불어 座次를 정할새 소저의 나이 일년이 더하되 감히 위에 앉지 못하거늘 后 曰, “영양이 이제는 나의 여아이니 어이 외대하기를 이렇듯이 하나뇨?” 소저 고두 曰, “오늘날 座次는 곧 다른 날 차례 되나니 어이 감히 어지럽게 하리이꼬?” 난양이 가로되, “春秋 적 趙衰의 아내는 晉 文公의 딸이로되 먼저 얻은 狄女에게 사양하였으니 姐姐는 곧 小妹의 형이니 어이 의심하리이꼬?” 소저 사양하기를 오래 하더니 후 명하여, “형제 차례로 앉으라.” 하시니 이후로 궁중이 영양공주라 하더라. (283~285면)

앞서 정경패가 난양공주와 함께 ‘夫人’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태후의 말과, 작품 후반 부에서 정경패가 영양공주의 신분으로 양소유를 속이며 하는 언급¹³⁾에서 드러나듯이 표면적으로는 사대부 여인 정경패가 난양공주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법도이다. 실제로 작품 곳곳에서 이러한 역전이 불가함을 역설하고 있는 대목이 빈번한 것을 볼 때,¹⁴⁾ 당대 관습으로는 정경패의 지위가 난양공주 아래 있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패는 ‘第一夫人’의 지위에 오를 뿐만 아니라 후일 정경패의 아들이 장자가 되어 양소유의 집안을 이어가기까지 하는 등 실질적으로 난양공주보다 상위에 있다. 신분제 사회에서 신하의 직위가 왕 아래 있음이 너무도 당연한 사실임을 고려할 때 정경패와 이소화의 관계가 사실상 역전되고 있는 것은 결코 범상히 보아 넘길 것이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지적되고 있듯이 〈구운몽〉에 숨겨진 사유 의식 중 하나는 상층계급은 관용으로 하층계급을 포용하며, 하층계급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조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확실히 두 부인과 여섯 사람의 첩 사이인 妻妾관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¹⁵⁾ 그러나 난양공주와 정경패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의가 곧장 대응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구운몽〉에서 정경패를 ‘제1부인’의 위치에 놓았다는 것은 엄격한 신분제의 위계질서가 적어도 상층부 내에서는 흔들리고 있음을 은밀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구운몽〉에 숨겨진 작자 의도의 또 다른 면을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잠시 작품 외적으로 작자 김만중의 입지와 당대 시대적 배경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김만중의 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우선 그가 西人의 당파에 속해 있으며, 그의 증조부가 禮論의 대가인 沙溪 金長生(1548~1631)이고, 그의 둘째 조부 또한 예학에 밝은 학자인 金集(1574~1656)이라는 점이다. 이 두 사람은 서인의 예학을 형성하는 데 중심축이었으며, 이들의 예론은 17세기 정치권에서 禮訟論爭이 벌어졌을 때 서인들의 주장의 바탕이 되었다.¹⁶⁾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예송논쟁에서 반대파인 南人이 ‘王의 禮는 일반 士나 庶人의 예와 동격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예를 적용하며 우대해

13) “공주가 하시기를, 첩이 비록 누추하나 娘娘의 사랑하시는 딸이요, 鄭女 비록 고우나 불과 여염 미친한 여자라, 禮文에 ‘임금 타시는 말을 보고 급게 하였으니’ 말을 공경함이 아니라 임금을 공경함이라. 상공이 만일 조정을 공경하실진대 첩을 어이 정녀에게 비기리이까?” (321면)

14) “소저 일어나 대답하여 가로되, ‘聖恩이 이렇듯 하시니 천첩의 몸을 마야 가루를 만들어도 다 갚지 못할소이다. 다만 신첩은 人臣의 자식이니 어이 감히 王姬로 더불어 名位를 같이하리이꼬? 첩이 비록 순종하여 하여도 첩의 부모 죽기로 다투어 명을 받들지 아니하리이다.’” (269면)

15) 이는 작품 말미에서 정경패와 이소화의 제안으로 8사람이 모두 형제의 의를 맺으나 그 후에도 여전히 본분을 지키고 있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이후 六人이 비록 명분을 지키어 감히 형제 칭호를 못하나 양부인은 상시 자매라 부르고 은애 더욱 극진하더라.” (419면)

16) 이하의 논의는 정옥자, 「17세기 사상계의 재편과 예론」(『한국문화』 10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9)을 참조하였다.

야 한다' 고 한 데 반해, 서인측은 『朱子家禮』의 정신에 입각하여 왕이든 士든 大夫든 일반 백성이든 똑같은 예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天下同禮의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이들의 주장에서 이미 왕권에 대한 절대적 우위가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¹⁷⁾

상층 계급 내에서 위계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사대부 사회가 계층분화 되면서 일반 사대부 위에 '大家名門'이라는 특수층이 존재하는, 이른바 문벌사회가 성립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閥閥에 속하는 가문은 혼인과 인척 관계를 통해 그 세도를 유지·확장하였고, 실제로 왕가와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왕의 외척이 되어 그 세력이 왕권 못지 않았다.¹⁸⁾ 이렇게 사대부 내의 계층분화를 통해 최고위층의 문벌가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던 시대 상황은 작품 〈구운몽〉에도 잘 나타난다.

한 처자 있으니 재모를 의논하면 진짓 양랑의 짝이로되 다만 門地 너무 높아 여섯 代 공후요 세 代 정승이라. 양랑이 만일 新榜 급제를 하면 이 혼사를 의논하러니와 그 전은 일러 부질없으니 구태여 老身을 자주 와 보지 말고 과업을 힘쓸지어다. (75면)

소저 왈, “천첩이 어떤 사람이라 감히 王姬로 더불어 한 輦을 타리이까?”

공주 笑曰, “呂尙은 어부로되 文王의 수레를 타고, 候嬴은 監門이로되 公子(信陵君)가 고삐를 잡았으니, 姐姐는 여러 代 侯伯의 집이요 大臣의 여자이니 어찌 小妹와 한가지로 탐을 사양하리이까?” (265면)

정경패의 집안이 대대로 공을 세운 명문 거족이기에 같은 사대부라도 아무나 혼사를 의논할 수 없고, 또한 공주와 자리를 함께 하기에도 모자람이 없다는 입장은 당대 문벌 가문의 위치가 여타의 사대부 가문과 달랐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난양·영양공주와 결연한 이후 양소유의 위상이 황제의 동생인 越王과 거의 비등하거나 오히려 더욱 우월한 데서도¹⁹⁾ 이들 상층 사대부의 입지가 어떠한지 잘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작품 〈구운몽〉에는 상·하층 계급 간의 신분적 질서가 공고한 가운데서도 왕실과 문벌가문이라는 상층 계급 내에서는 이러한 상하 위계질서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작자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시 공고한 중세의 신분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상층 계급 내의 신분의식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정리할 수

17) 정출현(앞의 논문, 182~185면) 역시 양소유와 정경패의 혼사장에 해결과정에서 대해 王權과 臣權의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정경패의 신분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 禮論의 문제에서 논의하는 데 멈추고 당대 상층 사대부의 신분질서 의식까지 논의를 예각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18)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1988, 105~109면;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사실주의적 성격과 낭만적 구성」,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13~18면; 김석희, 앞의 논문, 241~245면.

19) 이는 작품 후반부에서 양소유와 월왕이 풍류를 과시하는 '낙유원 잔치'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기반이 되는 작자의 사유는 무엇일까?

3. ‘개인’의 강조와 평등의 시선

이미 지적한 대로 사대부 여인이 황제의 딸인 공주를 넘어서 ‘제1부인’이 된다는 것은 당대 신분의식 하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자가 신분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근거로 ‘개인의 자질’을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英陽[정경패]이 조용히 后계 사피되, “당초에 난양으로 더불어 座次 정하여 앉음이 실로 외람 하되 낭랑의 양육하시는 은덕을 외대하는 듯하여 본심을 지키지 못하였더니, 이제 楊家에 들어가 난양이 오히려 第一位를 사양하면 이는 천고에 없은 일이니 낭랑과 성상이 이리 정하심을 바라나이다.”

난양 왕, “소녀가 전일 趙姬(趙襄의 아내)의 말을 인함이 정히 이 일을 위함이라, 姐姐가 德性 과 才學이 다 소녀의 미칠 배 아니니 비록 鄭門에 있을지라도 소녀 오히려 趙姬의 讓位를 하려 든 이제 형제된 후 어찌 尊卑 있으리이꼬? 소녀는 비록 둘째 부인이 되어도 王姬의 존귀함은 損함이 없거니와 만일 第一位에 거한즉 낭랑이 저를 양육하신 뜻이 어디 있나니이꼬? 부디 소녀에게 正位를 사양하려면 진정으로 楊氏에 감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后 상계 물으신대 상이 가라사대, “御妹 괴로이 사양함이 천고에 없은 뜻이니 청컨대 아름다운 뜻을 이뤄주어지이다.” (311~313면)

‘덕성과 재학이 모두 자신 보다 높기에 마땅히 讓位할 것’이라는 난양공주의 말에서 작자의 사유를 읽을 수 있는데, 이는 곧 ‘신분’이라는 사회적 지위보다 개인의 인격과 재질이 더욱 중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이상의 사유는 당대의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서고 있음이 사실이며, 이는 〈구운몽〉이 지향하는 또 다른 가치일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앞서 살핀 바를 고려한다면 왕과 신하라는 엄격한 신분 구분을 벗어나 이 둘을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동등하게 보려는 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비록 상층계급만을 대상으로 한 의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개인을 한 사회의 부속물이 아닌 고유한 존재로 인정하고자 하는 가치의 맹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²⁰⁾ 특히 이때 개인의 고유한 존재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단지 개인의 자질의 뛰어난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설사 당대 사회 인식

20) 김동욱은 「김만중의 문학세계」(『김만중연구』, 새문사, 1983)에서 양소유와 팔선녀가 결연과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데 주목하여 ‘개인주의의 맹아’가 싹트었다고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출현은 이를 ‘양소유 애정의 본질을 무시한 견해’라 하면서 비판한 바 있다(앞의 논문, 159~161면). 본고에서는 김동욱의 견해를 일반적으로 비판하기엔 양소유의 애정에 중세의식을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개인주의의 맹아’의 문제는 그 근거를 애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층 사대부로서의 인식 변모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사고나 행동 등을 인정하는 태도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구운몽>의 등장인물들에게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먼저 양소유의 경우를 보자.

生曰, “소자 감히 자랑할 줄이 아니라 수춘 과거는 소자의 줌치 가운데 것이어니와 평생에 어린 발원이 있어 처자의 얼굴을 보지 못한 후는 구혼을 아니려 하나니 사부는 자비하여 소자로 하여금 한 번 보게 하소서.”

鍊師 大笑하고 이르되, “宰相家 處子를 어이 서로 볼 리 있으리요? 楊郎이 老身의 말이 信實치 아닌가 의심하느냐?”

生이 가로되, “小子 어이 감히 의심하리이까마는 사람의 所尙이 다 各各 다르니 사부의 눈이 어이 마치 소자와 같으리이까?” (77~79면)

‘사람의 所尙이 다 各各 다르니 사부의 눈이 어이 마치 소자와 같으리이까’ 라는 양소유의 언술은 전통 사회, 특히 상층 계급의 남녀 결연에 개인의 감정이 고려되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작자의 진보적 사유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양소유가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은 이후 다른 팔선녀와의 결연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양소유와 팔선녀의 결연 과정을 보면, 양소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가 여부이다. 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경패와의 결연에서도 신분이나 용모, 재덕의 모든 면에서 양소유의 천생배필이라는 여러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양소유는 본인이 직접 보고 판단하기를 원하였고, 이후 정경패와의 결연을 결심한 것도 자신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경패와의 결연이 신분에 걸맞기 때문이 아닌, 情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작품 내에서 누차 반복된다.²¹⁾

이처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는 양소유 및 정경패와 난양공주 등 상층계급의 인물들에게서뿐만 아니라 하층계급의 여인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경우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남녀간의 결연 문제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배필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으며, 결국 이를 실현해내고 있다. 狄驚鴻이 기생이 된 것은 “窮鄉 여자로서 스스로 사람을 듣보기 어렵다 하고 오직 창녀는 영웅호걸을 많이 보니 가히 마음대로 가리리라”(71면)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며, 桂蟾月 또한 “욕을 참고 이에 이름은 하늘이 어여빠 여겨 一朝에 일을 이뤄 군자를 만나 天日을 볼까 함이라”(65면)는 뜻에서 기생이 되었고, 이에 양소유를 만나자 평생 소원인 군자를 만났다 하며 그의 첩이 되기를 자청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무엇보다 秦彩鳳과의 결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진채봉은 사대부 집안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양소유와의 우연

21) “尙書 鄭女로 더불어 심상한 議婚이 아니라 情分이 중하여 서로 버리지 못할 듯하니 이 일이 극히 난 처한지라.” (137면)

한 만남에 마음을 뺏긴 뒤로, 예의에 어긋남을 무릅쓰고 그와 결연할 것을 청한다. 진채봉의 행동은 당시 사대부가의 예법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임에 불구하고, 이에 대해 “여자의 장부를 좇음은 종신의 대사라 (…중략…) 비록 스스로 仲姻하는 혐의를 피치 아니하나 부녀의 節行에는 해롭지 않다”(33면)라고 하며 그와 결연한다. 이렇듯 양소유와의 결연과정에서 보이는 여덟 여인의 행동은 당대 사회 인식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작자 사유의 한 부분을 이해할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운몽〉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지적한다면, 무엇보다 사회적 신분이나 관습이 아닌 개인의 고유한 자질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라 할 것이다. 앞 장에서 살핀바, 상층계급 내에서 개인의 자질이 신분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이러한 의식에 기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양소유와의 결연 과정에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하층계급 인물들에게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은 작자 김만중이 지니고 있는 진보적인 의식의 반영이라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서 〈구운몽〉을 통해 중세의 공고한 의식에 대한 작자의 변화의 욕구가 은밀히 투영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이 표출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식을 표현하는 데 성진의 꿈이 양소유의 삶이라는 작품의 서사구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범상치 않길 일이 아니다. 양소유의 현세에서의 삶이 ‘사실은’ 성진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꿈’이라는 설정에서부터,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양소유와 팔선녀의 삶은 예정된 것이었다.

생이 다시 절하여 받고 인하여 물어 가로되, “선생이 소자를 인간 부귀를 기약하실새 인간 일을 묻잡나이다. 소자 화음현 진씨 여자를 만나 바야흐로 議婚하더니 난병에 딸이여 이곳에 와 있으니, 아지못게라 이 혼사 일이니까?”

도사 大笑하고 이르되, “이 혼인 길이 어둡기 밤 같으니 天機를 어이 미리 누설하리요? 비록 그러나 그대 아름다운 인연이 여러 곳에 있으니 모로미 秦女를 일편되어 眷戀하지 말지어다.” (45면)

‘아름다운 인연이 여러 곳에 있다’는 도사의 말처럼 전세의 인연이 大唐國에 있기에 劍術을 배워 아름다운 인연을 이루고자 한 沈裊烟과의 만남,²²⁾ 전세의 인연을 좇아 양소유를 따라온 龍女와의 만남²³⁾ 등에서 나타나듯이 양소유와 팔선녀의 만남은 운명적으로 예정된 것이었다. 양소유와 여덟 여인은 본디 천상계에서 인연을 맺었던 존재였고 그렇기에 현세

22) “스승이 이르되, ‘너의 전세 인연이 大唐國에 있으되 그 사람은 큰 귀인이라, 너는 外國에 낳았으니 서로 만날 길이 없으니 너를 검술을 가르쳐 이 일을 빌어 귀인을 만날 도리를 가르치니, 他日에 백만군중 창검 가운데 아름다운 인연을 이루리라.’” (211면)

23) “첩은 洞庭龍王의 작은딸이라. 첩이 갓 나며 父王이 上界에 조회하러 갔더니 張真人을 만나니 첩의 八字를 물으니, 眞인이 이르되 ‘이 여자 壽命이 전세에 仙家로서 내려와 今世에 龍神이 되었으니 다시 사람의 몸을 빌어 인간의 크게 귀한 사람의 姬妾이 되어 일생 부귀번화를 누리고 나중에도 佛家에 돌아가리라 하니(…후략)’” (219면)

에서 이들은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단한 구조’로 인하여, 그 결연 과정에서 설사 당대의 관습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독자로서는 이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마련된다.²⁴⁾ 이러한 측면에서 양소유와 팔선녀의 결연 과정상에 일어나는 갈등은 애당초 심각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현실에서 용인되지 않는 해결책이 나온다 해도 독자의 이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선행연구에서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하나로 지적된 ‘여주인의 몸종과 남주인 사이의 애정 갈등’²⁵⁾인 貫春雲과의 결연 문제는 물론 당대 신분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가춘운이 정경패의 시비이기 이전에 작품 속의 실제 세상이 연화산에서는 남악 위부인 아래서 함께 수행을 하던 동기라는 설정을 상기한다면, 독자로서는 양소유와 결연하는 데 있어 가춘운의 신분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팔선녀의 신분이 인간 세계에서는 공주, 사대부가의 여인에서 시비, 기생, 오랑캐 여인, 龍女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끊임 없이 이들이 원래 ‘근본이 다르지 않은’ 팔선녀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음²⁶⁾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정경패와 가춘운, 난양공주와 진채봉이 각기 신분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형제와 골육의 정을 나누며 자라왔음을 강조하는 대목²⁷⁾과 작품 곳곳에서 이들을 묘사하는 데 모두 인간세상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승상은 본디 佛門 高弟요 諸娘子는 南嶽 선녀라 稟氣하기를 靈이 許하였고 승상이 또한 藍田 山 도인의 仙方을 품수하였는지라 춘추 높으나 귀인의 용모 더욱 젊으니 시절 사람이 신선인가 의심하는 고로 詔書에 그리하여 계시더라. (405~407면)

이들의 남악 형산에서의 신분이 지상세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양소유의 세계에 지속적으로 성진의 세계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²⁸⁾ 즉, 양소

24) 이와 관련하여 “허구의 세계(성진의 세계)의 주인공인 성진으로 하여금 허구의 꿈을 꾸게 만드는 ‘환몽구조’를 통해, 양소유의 삶을 자유롭게 그려내는 여유를 지닐 수 있으며, 이로써 주자학적 가부장제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무게 아래 짓눌렸던 사대부 남성에서 욕망의 표출 공간을 얻어내는, ‘소설적 이완’을 성취하는 의의가 있다”라고 한 강상순의 논의(『구운몽과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상관성』,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210~221면)를 참조할 수 있다.

25) 박일용, 앞의 논문, 201면.

26) “제자 팔인이 각각 집에서 비록 나서 자랐으나 한 사람을 섬겨 정히 합한 기미 같으니, 비컨대 한 나무 꽃이 바람에 불리어 혹 구중에 떨어지고 혹 규합에 떨어지고 혹 촌가에 떨어지고 혹 맥상에 떨어지고 혹 변방에 떨어지고 혹 강호에 떨어지나 근본을 치자면 어이 다르리 있으리오?” (401~403면)

27) “소제(정경패) 사랑하기를 同氣같이 하여 片時를 떠나지 못하니 이름이 비록 奴主나 실은 閨中の 朋友라.” (97면); “공주 秦氏의 재모를 크게 사랑하여 情이 골육 같아 경각에도 서로 떠나지 못하더니(…)” (185면)

28) 이상택, 「구운몽과 춘향전, 그 대칭위상」(『김만중연구』, 새문사, 1983), III-45~50면; 신재홍, 앞의 논문, 152~157면.

유와 팔선녀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이를 벗어나 존재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양소유와 그 부인들은 작품 내에서 잠시 인간세상으로 쫓겨온 ‘비범한 사람들’ 이기에 그들의 행동에는 인간 세상의 법도에서 비껴갈 수 있는 여유가 마련될 수 있었고, 동시에 바로 이 지점에서 작자의 은밀한 사유가 투영될 수 있는 공간 역시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작품 말미 ‘남악에서의 발원을 이루었다’ 는 대목 바로 뒤에 공주에서 시비에 이르기까지 신분상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들이 형제의 의를 맺는 것이 별다른 무리 없이 독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장치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서사구조를 토대로 작자는 신분이나 사회적 제도에 우선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바로 이 점이 작품 〈구운몽〉이 지닌 또 다른 의의일 것이다.

물론 이상의 논의 결과 작자가 당대 전반적인 신분제 사회질서에 대해 비판의식을 지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작자는 일견 신분질서에 대해 진보적인 의식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는 철저히 상층 계급 내에 국한된 의견일 뿐, 하층계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계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즉, 양소유가 처한 현실 세계에서는 여전히 당대 신분제 질서 및 사회 관습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식이 드러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듯이 ‘배려와 관용’ 이라는 온화한 태도로 그려지고 있지만 그것이 더욱 ‘차등적 질서’ 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²⁹⁾ 그러나 이상의 한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각기 다른 개성을 존중하면서 평등한 시각으로 인물을 대하는 작자의 시선은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4. 결 론

〈구운몽〉은 우리 소설사에 있어 돌출하게 뛰어난 작품이다. 이 작품의 가치는 그간 ‘진보적 지식인의 파격적인 의식 반영이다’, ‘중세의 신분질서를 수용하며 이를 조화롭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등으로 양분되어 전혀 다른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실상 이 두 가지 특성 모두가 〈구운몽〉이 지닌 가치이며,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이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하여 작품 속에 ‘조화롭게’ 담겨 있다는 것이 작품 〈구운몽〉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소유와 팔선녀의 결연과정에서 유독 상층 사대부 여인인 정경패와의 결연에 작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출발점으로 작자의 의식 세계를 살피고자

29) 정길수, 앞의 논문, 70~77면.

하였다. 여기서 天子의 누이인 난양공주와의 결연이 정경패와의 결연에 큰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그 해결과정에서 오히려 정경패가 당대 신분질서를 넘어서 공주를 제치고 第一夫人의 위치에 접하게 되는 점을 통해 상층 사대부로서 가지는 작자의식의 일단면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정경패가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난양공주를 넘어설 수 있는 근거로 개인의 자질이 강조된다는 점과 양소유와 여덟 여인의 결연과정에서 무엇보다 당사자들 개인의 의지가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신분이나 사회적 관습을 넘어서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중시하는 작자의 태도를 살필 수 있었다. 또한 이는 다시 양소유와 여인들의 만남이 본디 성진과 팔선녀의 만남이라는 서사구조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팔선녀의 동질성이 부각되고 이는 곧 지상에서 각기 신분이 다른 여성들을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폈다. 이러한 면에서 〈구운몽〉은 중세의 신분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운몽〉은 중세 후기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변화해 가는 세상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의 결과물이며, 그로부터 얻어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다만 그 대상이 자신을 비롯한 상층계급에만 국한되면서 하층계급에 대해서는 위계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측면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작자의 진보적인 의식이 이후 하층계급에까지 과급되는 동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인 의미 또한 적지 않다 하겠다. 본고의 다음 과제는 지금까지 분석한 〈구운몽〉의 시각이 〈구운몽〉 이후에 등장하는 소설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승되고 변용되는가의 문제를 살피는 것이다.